



서른세번째 이야기

BEE Korea의 이사회 요모조모

이사회는 BEE Korea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정기 이사회는 1년에 두 차례 총회 전에 개최됩니다.

이번 정기이사회는 11월 27일에 윤현덕 장로님택에서 맛있는 조찬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낸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사회는 이사님(주로 윤현덕장로님, 정진희권사님)택에서 모이는데 그래서인지 더욱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BEE의 중요 사항들은 일단 이사회를 통과한 후 총회에서 다시 의결을 거쳐 최종결정이 됩니다. 이번 이사회 의 안건은 2018년 사역 계획과 예산, 신임 사역자, 선교사 허입, BBK 준비 등 여러 안건이 있었는데 모든 안건이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들도 있었지만 충분한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사실 맛있는 식사를 하고 나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모든 것이 원만해 지기는 하죠.) 이사회를 할 때마다 분위기가 참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BEE를 매우 사랑한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는데, 그 바탕에 우리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 확신합니다.

현재는 13분의 이사과 1분의 감사가 헌신적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젊은 분들이 이사로 섬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BEE의 평균 연령을 잘 알고는 있지만요.)

회의에 참석하신 이사 중 몇 분에게 아래의 질문을 했고 답변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 사역하면서 가장 기뻐거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 호남과 강경으로 찾사찾을 갔을 때와 해외에 세 번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을 때.
 - A국 FTS를 마치고 5명이 졸업식을 했을 때.
 - 학생으로 세미나에 참여하여 몹시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FTS ->FA ->FT로 임명되어 동역자로 자리 잡을 때.
 - 베트남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박해 받는 베트남인의 기도를 들었을 때.
 - 세미나를 들었던 학생들이 BEE 사역자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 아직도 BEE에 부족하거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아직도 BEE 안에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좀 더 친밀해지고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국내 세미나가 좀 더 많아져 새로운 사역자들에게도 세미나 인도의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 외국의 경우 인도자가 부족하다. DPM 전체 과정에 2~3명 복수의 예비인도자가 필요하다.
 - 학생들의 개별 특성, 기도 제목 등 진행 과정이 공감되면 좋겠다.
 - 교재 개발을 위한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 정규 세미나 과목에 접근하기 위한 필요 과정, 눈높이를 낮춘 과목과 진행 방식이 부족하다.
 - 좀 더 겸손했으면 좋겠다.
 - 선교공동체를 추구하며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되는 일을 해오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였고, 조금 더 전체공동체가 하나 되는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 20년 후에도 BEE가 주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 좀 더 과감하게 30대 사역자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외국인 사역자들과 직접 만나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한다.
(우리가 아웃리치 나가는 것과 더불어 외국인 사역자들이 더 많이 들어와 교제했으면 좋겠다.)
 - 과거 20여년의 역사 중 특히 잘한 점, 부족한 점등을 잘 정리하여 전달하고, 100년이상 지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 차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
 - 차세대를 발굴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을 개발하고 체계화 시켜야 한다.
 -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 차세대 리더십의 개발이 필요하다.

차세대를 발굴하여 훈련시키는 일이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많은 이사님들이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차세대 리더들이 말씀을 듣고 세계로 나가는 사역을 감당할 그 날을 기대를 갖고 기다려 봅니다. (글: 한숙영, 편집: 이경주)

BEE 소식

- 13명의 필리핀 사역자들이 라구 인도자 강습회를 즐겁게 수강하고 라구 교재를 사용하여 그 곳의 차세대를 양육하려는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 인도 동북부의 주요 도시인 캘커타에서 처음으로 BEE 사역이 시작됩니다. 인도자는 쉬비입니다. 계속하여 BEE 세미나가 열리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Bee Korea 이사회

